
IV

가장도





여수시 
변천사

IV. 가장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 지리적 배경

1) 일반개요

가장도는 여수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하며 가막만 환경보전해역 내 있는 섬으로 육지에서 900여m 떨어져 있다. 1970년대까지는 유인도였으나 지금은 무인도이다. 대경도와 소경도 사이에 있는 야도, 가장도, 풍낙도, 노랑도 등의 섬들과 함께 징검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인근에서는 ‘가쟁이 섬’이라 불렀는데 한자로 표기되면서 가장도(加長島)가 되었다. 섬의 북단에 사취로 연결되는 작은 섬은 인근 경도에서는 ‘똥섬’으로 부르는데 2015년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노랑가쟁이섬’으로 지명 고시됐다.

가장도에선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장한 어머니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1962년 새싹회로부터 그해 장한 어머니로 뽑힌 가장도 어머니 뱃사공 박승이 여사는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딸의 교육을 위해 학교가 없던 가장도에서 육지인 여수 남국민학교로 매일같이 노를 저어 통학을 시켰다.

이 일화가 회자되면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영화 ‘모정의 뱃길’로도 제작됐다. 가난과 배움에 목말랐던 암울한 시절, 자식을 향한 지극한 어머니의 정성과 희생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고, 가장도는 남해안의 작은 외딴 섬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금까지도 가장도는 ‘교육의 섬’, ‘모정의 섬’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 행정구역 : 여수시 월호동 가장도
- 면 적 : 84,299m²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무인도)

· 주요 선착장 간의 거리

여수시 동남쪽 대경도와 소경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월호동 여객선 터미널에서 약 0.9km 지점에 있다.



가장도 전경

나. 지형과 환경

가장도는 구릉지를 중심으로 완만한 지형을 이룬다. 남쪽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해안은 만과 같이 연이어져 드나뭇이 복잡하고, 가장도의 지질은 후기 백악기에 관입한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해안에 걸쳐 화성암 기반의 기반암에 대해 침식이 진행 중이며 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안 곳곳에서 구상풍화와 핵석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암체에서 떨어져 나온 핵석들이 해안에 쌓여 자갈해안을 이루고 있다.

남쪽 해안과 북동 측 해안에는 소규모의 파식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 해안 파식대 근처에는 암주상으로 관입 된 지형도 관찰된다. 북동쪽 해안에는 소규모의 모래 해변

이 남쪽에는 패각의 퇴적이 그 외 지역은 cobble급 이상의 거력으로 이루어진 자갈해안이 형성되어 있다. 사취로 연결된 동도는 전체적으로 응회암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타포니(Tafoni)와 포획암을 관찰할 수 있다.



남측 해안에 형성된 파식 대지



사취로 연결된 가장도와 동도의 모습



남동쪽 해안에 형성된 파식 대지



남동쪽 해안에 형성된 파식 대지



포획암



풍화로 인해 모암에서 분리된 토어



선택적 풍화에 의해 형성된 핵석



핵석의 박리현상



북동쪽에 발달한 소규모의 모래 해변



동도를 구성하는 응회암에 형성된 타포니(Tafoni)



구상풍화 모습



기반암과 관입한 암주의 풍화 모습



모든 해안에서 나타나는 침식 현상



남측 해안에 형성된 패각퇴적 해변



암주상으로 관입한 지형



풍화에 의해 토어가 형성되는 모습

다. 식생과 생태



자귀나무



참나리 군락지



갯논쟁이



곰솔 군락



노린재나무



돈나무



가장도 지명지도

2. 섬 생활의 변천

가. 주민들의 생애사

1) 이태준 할아버지 인터뷰

이태준 할아버지(87)는 3살 즈음 작은아들인 부모님과 함께 여수 신월동(넘너리)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도 신월동(넘너리)에 살고 있으며, 본인 밭을 비롯하여 친척들의 밭을 경작하고 있다.



넘너리에서 가장도 텃밭을 오가는 이태준 할아버지

가장도에는 큰집 즉, 큰할아버지 집을 포함하여 7~8가구들이 살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현재는 무인도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가장도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주로 장어를 많이 잡아다 위판하여 집마다 생활이 풍족했다.



이태준 할아버지가 밭일하시는 모습

가장도에는 논이 없어서 인근 광양에 논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대부분 빈집이었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도에 거주하였고, 이후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멸망하는 인부들이 빈집에 살았다고 한다. 멸망 인부 한 분이 계속 살았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한다.

영화 ‘모정의 뱃길’ 주인공인 정숙현 씨가 가장도에서 혼자 학교에 다녔는데 육지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기 위하여 신월동 바닷가 큰 바위(개장골)에서 손짓을 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정 씨의 아버지는 3형제가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힘든 생활을 하신 정숙현 씨 어머니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영화 ‘모정의 뱃길’ 촬영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소방차가 물을 뿌려 비바람 날씨를 연출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모정의 세월’은 영화와 더불어 만화책으로도 출간되었는데 그 기억 역시 또렷하다고 했다.

2) 영화 ‘모정의 뱃길’ (노래 : 이미자의 꽃 피는 여수바다, 1966년)¹

나는 모른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몇 억겁의 지난 후의 이 파도 위에도 한 오라기 주름살이 굽이칠까. 살을 에는 어머니의 뱃길 따라 왜 오고 갔는지를 나는 모른다. 깊고 또 깊은 곳에 남아 있거라. 물보라가 그리는 한 장의 초상화, 아, 나의 어머니 모정의 뱃길. 굳이 거창하게 시(詩)라고 말하지 않아도 좋다. 단지 물길처럼 마음 또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모정의 세월 영화 한 장면

1956년, 모두가 먹고살기 힘든 시절,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한다는 것은 지금의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보다 더욱 귀한 일이었다. 그것도 스무 명이 채 못 사는 자그마한 섬마을 출신의 여자아이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말이 좋아 섬마을이지, 내 가족을 포함해 겨우 세 가구가 살았던 그 섬에서는 생계를 위해 약간의 채소와 나물을 육지에 팔려나가기 위해 이용했던 나룻배 한 척만이 외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남들이 다 자는 깊은 밤, 달빛에 의지해 혼자 노 젓는 방법을 의하셨다. 병중인 아버지와 높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오랜 세월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원통하게 여기신 어머니는 절대로 딸에게 문맹을 대물림할 수 없다고 결심하였다. 내 어머니 박송이는 그렇게 6년간 전남 여천군(현재 여수시) 가장도에서 20리 바닷길 노를 저었다.

시계는 커녕 수탉도 없던 새벽, 어머니는 오직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로 그날 날씨를 가늠하며 조각배를 띄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태풍 사라호로 산산조각이 난 배의 파

¹ [출처] 모정의 뱃길 주인공 정숙현 씨 한국일보

편을 안고 통곡했던 어머니. 한겨울 추위에 갈라진 손등으로 여자도 배워야 한다는 일념만으로 파도를 헤쳐나가던 어머니였다.

말로는 표현 못 할 6년의 세월, 마침내 졸업식 날이었다. 어머니는 박수갈채와 울음바다 속에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우리의 사연을 취재했던 한국일보 이문희 기자로 인해 '모정의 뱃길 3만4천 리'는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며 우리 모녀는 한국일보와 인연을 맺게 됐다. 1962년 2월 14일 자로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한다.

그때 받은 격려 편지는 국내외에서 하루 200여 통 이상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정의 뱃길'이란 이름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어머니를 소재로 한 노래(필자 주: 이미자의 '꽃피는 여수바다')도 불려졌다. 그리고 라디오 연속극까지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여수에 내려와 어머니와 나를 격려하며 장학금을 주던 일을 잊을 수 없다. 그 후 나는 여수에서 중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성균관대 국문학과)을 나왔다.

이제 아이 세 명을 키우는 나는 당시의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다. 딸 가족을 위해 새벽 기도를 다녀온 후 낮은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는 어머니의 얼굴은 마냥 평화롭다. 내가 한석봉이나 이윤곡이나 맹자처럼 훌륭하지 못한 탓으로 내 어머니가 그들의 어머니처럼 길이길이 기억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나 이젠 거의 잊혀 가고 있는 어머니를 기억해 이런 지면을 통해 어머니에게 감사와 사랑의 글을 올릴 수 있게 해 준 한국일보에 감사한다. 나 또한 어머니의 발끝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나마 당신의 모습을 담으려 한다.

(사진 출처: 국가기록원)



박승희 여사를 격려하러 온 박정희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1962년 2월 18일 가장도 뱃사공 어머니 표창 장면

3) 사랑의 뱃길 노랫말

♪사랑의 뱃길 삼만리(三萬里)

황금심, 백설희 노래♪

1. 가장도 바닷바람 휘몰아쳐도 어머니 약한 팔에 노를 저었오
육 년을 하루 같이 어린 딸 위해 사랑의 뱃길 삼만리 눈물의 뱃길 삼만리
장하신 우리 엄마 그 은혜를 저는 압니다
2. 여수남 국민학교 졸업장 들고 내 딸을 열싸안고 나는 울었오
외로운 섬 속에도 봄철은 왔오 동백꽃 곱게 피는데 물새는 노래하는데
오늘도 노를 저어 너를 학교 보내어 주마
3. 사랑의 뱃길이라 몇만 리라도 딸 하나 엄마 하나 같이 가려오
가난은 할지라도 희망은 있으 굳세게 살아가리라 바르게 살아가리라
하느님 우리 모녀 영원토록 지켜 주소서

앨범 : 영화 주제가집 제5집 [피리 불던 母女고개]
제조회사 : 신세기 축음기 주식회사 제작 SLB 10354